

## 아빠 육아휴직, 10년 새 20배 늘었다

지난해 육아휴직을 쓴 아빠가 약 4만명으로 10년새 약 20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향신문'이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0 육아휴직 통계(잠정)'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한 사람은 전년보다 3.7% 증가한 16만 9345명이다. 2010년과 비교하면 2.3배 늘었다.

전체 육아휴직자 가운데 아빠는 3만8511명으로 전체의 22.7%를 차지했다. 이는 10년 전인 2010년보다 19.6배 많은 것이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율은 2017년 12%, 2018년 16%, 2019년 19%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처음 20%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여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처음으로 80%선 아래인 77.3%(13만 834명)를 나타냈다.

출산을 앞두고 일을 그만두는 여성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모의 44.0%는 출산일 기준 직업을 갖고 있었는데 이는 출산 360일 전에 비해 10.1% 포인트 적은 것이다.

육아휴직이 늘고는 있지만 양극화가 두드러졌다. 육아휴직자의 63.5%는 종사자 규모가 300명 이상인 기업 소속이다. 종사자 규모가 4명 이하인 회사의 육아휴직자 비율은 4.6%에 그쳤다.

육아휴직은 아이가 태어난 시점에 쓰는 경향이 높았다. 2011~2020년 1자녀 부모를 대상으로 육아휴직 사용 행태를 분석한 결과, 1자녀 부모 육아휴직자의 74.4%는 자녀가 만 0세 때, 10.3%는 만 6세 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육아휴직을 1번 이상 나눠 사용하는 경우는 전체 18.5%였다.

## 면세점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2022년부터 면세점 구매한도가 폐지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지 43년 만이다.

20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는 1979년 도입됐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구매한도 제한은 해외 제품에 대한 소비 억제 등을 위해 1979년 만들어졌는데, 한국의 현 외환 보유량이나 경제 규모를 감안할 때 과소비 억제와 외화 유출 방지란 제도의 설립 취지가 퇴색된 측면이 있다"며 "낮은 구매한도로 고가 제품을 해외에서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면세업계의 운영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600달러는 현행 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면세한도는 입국 시 면세점과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이 면세되는 1인당 한도액이다.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가 된 후 7년째 유지되고 있다.

내국인 구매한도 폐지 소식에 면세 업계는 반색하고



▲ 사진=Shutterstock.com

나섰다. 업계는 그간 국민 구매력에 비해 구매한도가 너무 작다고 주장해왔다. 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면세업계의 회생을 위해서라도 해당 규정을 신속히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해왔다. 다만 면세한도가 기존 수준에 머무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정부는 국제 관광 재개 전까지 항공·면세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 운영 기한 역시 올 연말에서 내년 6월 말로 6개월 추가 연장한다.

## “한국 1인당 GDP 6년 뒤 일본 추월”



▲ 사진shutterstock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6년 뒤엔 일본을 추월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국이 아닌 일본 쪽의 전망이어서 눈길을 끈다.

16일 '한겨레'에 따르면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자료를 인용해 1인당 국내총생산에서 2027년엔 한국, 이듬해인 2028년엔 대만이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센터는 그 이유로 일본 행정의 디지털화가 늦고 노동생산성이 정체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2020년 현재 3만 9890달러로 한국보다 25% 대만보다 42%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이후 연 6%, 대만은 연 8.4% 늘어나는데 비해 일본의 성장률은 2.0%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신문은 "이 차이는 노동생산성의 차이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20~30년대에 한국과 대만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인당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4%포인트 이상 끌어 올리지만, 일본은 2%이하에 그친다"고 분석했다.

한편, 국내총생산에선 중국이 2033년께 미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 연구소는 지난해 말 예측에선 미·중 간의 역전이 빠르면 2028년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그 시기가 늦춰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규제와 장기적인 인구 감소로 인해 2050년 무렵엔 미국의 경제력이 중국에 재역전 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재 치열하게 진행 중인 미·중 전략 경쟁의 항방과 관련해 매우 심오한 함의를 갖는 것이라고 연구소는 밝혔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정직과 신뢰로 최선을 다해 도와드립니다.”

# 천관우 변호사 그룹

**DACA 연장, 드림법안  
및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중**

**이민법, 상법, 부동산법 전문 프로디 관련 상담**

**고국에 계신 부모님/배우자 영주권 신청**

**이민법**

영주권 (취업 1,2,3순위 이민 - NIW, 국제적기업간부급, 간호사 포함, 결혼 및 가족초청이민, 종교이민) 각종 비이민비자 (H1B, R1, E2, E1, L1, F1, O, P, TN/TD비자 등), DACA, 601A Waiver, 245i 추방유예상당, J1 Waiver, 영주권 인터뷰, 재입국허가서, 영주권 재발급, 시민권 신청

**\*취업 영주권 상담 / 거절된 케이스 재심 및 항소 신청 / 불체자 구제안 관련 상담 중**

**부동산법**

상업용 부동산 분쟁해결/강제퇴거명령(이박션)/Title에 대한 분쟁-Quiet the title/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상법**

계약분쟁 소송/각종계약서 작성 및 검토

**천관우 변호사**

서울고·연세대·법학박사  
가주 변호사 협회 정회원  
이민 변호사 협회 정회원  
josephlaw1224@gmail.com

☎ 상담문의

LA Office

**213-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OC Office

**714-522-5220**

6281 Beach Blvd., Suite 300, Buena Park, CA 90621